예약문의
1544-1600
AJ렌터카

metro
메트로 2013년 1월 2일 수요일 제2640호

김태희·비 열애설 발칵

지리산에 야생 반달가슴곰 산다

NEWS p/02

주택 취득세 두배 폭탄 '거래 급랭'

NEWS p/03

어린이집 안보내도 '돈' 받는다

0~5세 모든 가정 양육·보육비 중 하나 지원 집에서 애 키워도 3월부터 10만~20만원 지급

올해 3월부터 만 0~5세 영유아를 둔 가정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나 가정양육수당 중 하나를 지원받는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3년도 예산안에서 보육·양육 관련 예산이 당초 정부안보다 7295억원 늘어났다.

이에 따라 3월부터 0~5세 전 가정은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0~2세 영유아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 모든 가정에도 보조금이 지급된다.

보육료는 자녀를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위탁할 경우, 양육수당은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경우에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양육수당은 0세 20만원, 1세 15만원, 2~5세 10만원 등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 방식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0~2세 아이에 대해서는 가정 바우처(아이사랑카드) 형태의 지급과 기본 보육료의 보육시설 지급 형식을 유지한다.

예를 들어 전체 보육비가 75만5000원인 경우 만 0세 아이를 보육기관에 보낸다면 39만4000원은 부모에게, 36만1000원은 시설에 지원된다.

만 3~5세 아이의 경우 모두 표준 교육·보육 프로그램인 '누리과정' 대상에 포함, 무상 보육 지원을 받는다. 아이를 보육기관에 보낸 부모는 22만원의 바우처를 받아 보육비 전액을 해결할 수 있으며 보육기관에 맡기지 않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10만원을 지원받는다.

이에 따라 양육보조금을 지급받는 대상 아동 수가 지난해 11만여 명에서 올해 70만~80만 명 수준으로 크게 늘어난다.

뉴욕의 1월1일 싸이 유재석 노홍철이 열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 인기의 숨은 주역인 유재석과 노홍철이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무대에 올랐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타임스퀘어 특설무대에서 열린 ABC의 신년맞이 쇼 '딕 클라크스 뉴 이어스 로킹 이브 2013'에 싸이와 함께 출연해 '강남스타일' 공연을 펼쳤다. '딕 클라크스 뉴 이어스 로킹 이브'는 미국을 대표하는 것은 물론 세계적으로 유명한 새해맞이 카운트다운 이벤트다. 싸이는 자신의 뮤직비디오에 출연해 조력자 역을 톡톡히 해준 유재석과 노홍철을 전 세계인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이 무대에 초청했다. /로이터 연합뉴스

◆ **보육기관 보내면 지난해 수준 동일한 지원**

지난해까지는 만 0~2세의 경우 보육시설에 맡긴 때만, 만 3~4세는 소득 하위 70%까지만 보육료를 지원했었다.

또 만 5세 유아의 경우 보육·교육 통합 과정인 '누리과정'을 통해 모든 가정에 보육료가 지원됐었다. 양육수당도 0~2세 아이를 둔 차상위계층(소득 하위 15% 수준)에만 지원됐다.

/유동호기자

(광고)

전립선비대증(간단히! 한번에! 시원하게!)
KTP 레이저를 이용한 광선택기화수술로 확실하고 안전하게

발기부전, 조루증의 맞춤치료

◈가질적 발기부전의 원인
◈조루증의 원인
◈발기부전의 원인요법
◈조루증의 원인요법
◈발기부전이란?
◈조루증이란?

박용상비뇨기과의원 원장 의학박사 박용상 원장 의학박사 박동원
문의 051)241-5060
www.bestdoctor.co.kr

지리산에 야생 반달곰 산다

지난해 태어난 새끼곰 아빠 '토종' 가능성

지난해 태어난 지리산 반달곰의 아버지가 토종 야생곰일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리산에 방사했거나 야생에서 태어난 반달가슴곰 47마리의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새끼곰 1마리의 부계 혈통이 방사곰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이 새끼곰은 2005년 러시아에서 들여온 어미곰이 지난해 1월 낳은 새끼다. 함께 태어난 한 마리의 부계는 러시아에서 들여와 방사한 반달곰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토종 야생곰 멸종을 막기 위해 2000년대부터 복원 사업을 벌여왔다.

전문가들은 어미곰이 지난해 여름 러시아산 방사곰, 지리산 토종 반달곰과 각각 짝짓기를 해 '아비가 다른' 두 새끼를 밴 뒤 함께 출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곰들은 다부다처제로 새끼를 낳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단 생태복원부 양두하 박사는 "유전자 분석 결과 대만이나 일본 등지에서 주로 들여오는 사육곰이 아버지일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리나라 토종 야생곰의 유전자가 계속 이어져 보전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종혁기자

지난해 1월에 태어난 새끼 반달곰

오늘 영하 14도·내일 영하 16도

계사년 첫 출근이 빙판길과 강추위 속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2일 아침 서울을 비롯한 중부 대부분 지방이 영하 10도의 강추위를 보일 것"이라며 "밤사이 눈소식이 있어 빙판길에 유의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오전 4시를 기준으로 경기 대부분 시군, 강원 영서 북부, 충북 청원·괴산·제천·음성에 한파경보가 발효될 예정이다.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14도로 3일은 영하 16도까지 떨어져 추위가 절정에 이를 전망이다. /정윤희기자

시계침 1일 0시0분 통과하자마자 "엄마 보고싶었어요" 1일 새벽 서울 강남구 역삼1동 강남차병원에서 2013년 1월 1일 0시0분에 태어난 신유호씨와 한미사씨의 아들이 엄마 품에 안겨있다. /연합뉴스

응애~ 내가 1호 아기

2013년 계사년 희망둥이들 잇따라 힘찬 울음

계사년 첫 순간을 맞는 새해 1호 주인공들이 있다.

시계침이 1일 0시0분을 가리키자 서울 중구 묵정동 제일병원에서 3명의 아기 울음소리가 동시에 터졌다.

2.94kg의 딸을 순산한 황해미(23)씨의 남편 권오민(23)씨는 "뱀은 지혜를 상징한다는데 새해 첫출이로 태어난 아기가 사회에 보탬이 되는 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기뻐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CHA 의과학대학교 차병원에서도 아기 두 명이 제야의 종소리와 함께 세상의 빛을 봤다. 2.63kg의 아들을 출산한 한미사(32)씨는 "기다렸던 아이가 새해에 건강하게 태어나 대견하고 기쁘다"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에서도 새해 기념행사가 열렸다.

계사년 첫 손님은 중국 상하이를 출발해 오전 0시20분께 인천에 도착한 대한항공 KE896편 탑승객 중국인 천어림(35)씨였다. 한류 팬이라는 천씨는 "새로운 각오로 2013년을 시작하고자 한국을 방문했는데 예상하지 못한 큰 선물을 받아 기쁘다"고 말했다.

새해 첫 출발 화물기는 아시아나항공의 화물기 OZ987편으로 이날 오전 1시30분 IT 화물 32t, 칠레산 체리 14t 등을 싣고 중국 푸동공항을 향해 떠났다.

한편 새해 첫 해를 보기 위해 전국 곳곳에 많은 인파가 몰렸지만 서울의 경우 폭설이 쏟아지고 구름까지 짙어 해돋이를 보기 힘들었다. /장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강남고속버스터미널 광장은 2013. 1. 1부터 금연구역입니다

여기서 피우면 과태료 5만원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광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1일 한 시민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서초구는 1월부터 이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4월부터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연합뉴스

금융소득 年1억 버는 고액 자산가 1만8000명

이자나 배당과 같은 금융소득으로만 한 해 1억원이 넘는 돈을 버는 사람이 1만7537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일 금융투자업계와 국세청,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2011년 기준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자는 5만1231명으로 이들의 금융소득은 10조2074억원에 달했다.

이 중 금융소득 5억원이 넘는 신고자도 3063명이고 금액은 5조3697억원이었다. 금융자산가 3000여 명이 이자·배당으로 한 해 5조원이 넘는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다.

이들의 금융소득 외 소득은 2조177억원으로 금융소득의 37.6%에 불과했다. 이자나 배당 소득이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다른 소득보다 2.66배나 많았다. 금융소득이 3억~5억원인 신고자는 2416명(9250억원)이었고 2억~3억원 2847명(6910억원), 1억~2억원도 9211명(1조2683억원)에 달했다. /박성훈기자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73> 글·그림 박상철

사고 친 어린이집 홈페이지에 공개

올해부터 아동학대 이력 등이 있는 부정 어린이집 명단이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1일 이런 내용의 2013년부터 달라지는 행정제도 54개를 발표했다.

행안부는 올해부터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아동학대나 급식 위생사고, 보조금 부정 수령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명단을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홈페이지에는 명단 외에도 어린이집이나 보육 교직원의 위반행위와 처분 내용, 어린이집 대표자와 명칭 등이 공개된다.

행안부는 또 그동안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던 학교급식 위생 위반업체 명단을 시·도 교육청이나 학교 홈페이지에도 게재해 명단 공개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학부모가 직접 자녀의 행동을 통해 집단따돌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왕따진단지'를 보급해 학부모들이 아이에게 따돌림 예방 교육이 필요한지,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한지를 진단해 사전에 조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은 경찰, 소방, 군무원, 교육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5000~2만원을 전액 면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하며, 약국 이용 고객이 조제실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조제실 칸막이 일부를 투명하게 하도록 한다. /김유리기자

새해소원 하늘 높이 훨훨 1일 경기 용인 한국민속촌에서 관람객들이 연줄에 소원지를 묶어 하늘로 날려 보내고 있다. /뉴시스

새해 6시간이나 지나…342조원 예산안 통과

현정 사상 처음으로 해 넘겨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13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복지예산 100조 시대

박근혜 당선인 공약 뒷받침 예산 2조4000억 반영

'쇄신 국회'를 외치며 출범했던 제19대 국회도 2013년 새해 예산안을 해를 넘겨 1일 오전 처리하면서 '늑장 처리'를 되풀이했다.

해를 넘겨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 처리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다. <관련기사 12·21면>

이날 강창희 국회의장은 "예산안 처리가 늦어짐으로써 심려를 끼쳐드려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총지출 기준 342조원의 2013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예산 중 30%를 복지예산으로 배정하면서 '복지예산 100조원 시대'를 열었다. 사실상 보편 복지의 원년이라는 평가다.

내달 말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첫 살림살이이기도 한 예산안은 정부안에 비해 5000억원가량 줄어든 2조4000억원이 반영됐다.

예산이 늘어난 부분은 ▲0~5세 무상보육 ▲육아 서비스 개선 ▲맞벌이 부부의 일·가정 양립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사병 월급 인상 ▲중소기업 취업 희망 사다리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다.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사항 실현을 위한 국채발행 계획은 백지화됐다.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이용촉진법 개정안과 대형마트 영업제한 일수와 시간을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배동호기자 elevendl@metroseoul.co.kr

9억 이하 주택 취득세율 다시 2%로…'거래 절벽' 우려

1일 정부는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9억원 이하 주택에 취득세를 2%를 적용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취득세율 1% 인하 조치가 지난해 12월 31일로 종료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1%에서 2%로, 9억에서 12억은 2%에서 4%, 12억원 초과는 3%에서 4%로 높아졌다. 사실상 올해 주택 취득세율이 2배로 오르면서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충격이 예상된다.

정치권이 임시국회 등을 통해 뒤늦게 취득세 감면 연장에 나서더라도 확정되기 전까지는 매수심리가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로 거래 공백 현상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는 불확실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지성기자

특약→단독형 갈아타기 가능

실손의료보험 가입 요령

올해부터 소비자가 원할 경우 다른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실손의료보험만 별도로 가입할 수 있다. 1일 금융감독원은 선택권이 넓어지는 만큼 소비자들은 회사별로 다른 상품들을 꼼꼼히 비교해보고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동시에 판매하는 특약형 상품 판매 시 특약상품과 단독상품의 차이를 계약자가 잘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또 실손의료보험은 상품이 표준화돼 있어 보장 내용이 거의 유사한 편이기 때문에 회사별 보험료를 비교한 후 자신에게 적합한 회사의 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 가입자의 '갈아타기'도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 달라고 했다.

기존에 판매된 실손의료보험 중에는 자기부담금 없이 의료비를 100% 보장하는 특약형 상품에 가입한 사람도 계약 갱신 시 보험료 인상 수준이 부담된다면 새로 출시된 단독형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는 것이다.

/김현정기자 lazyhand@

가수 연봉 3800만원…회사원보다 1000만원 많아

연예활동으로 돈을 버는 배우·가수·모델들의 수는 2만5000여 명이고, 가수와 배우의 연소득은 회사원 평균 연봉보다 600만~1000만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1년을 기준으로 월급 등 고정 급여를 받지 않고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연예인은 배우 1만4161명, 모델 6362명, 가수 4029명 등 모두 2만4572명이다. 2010년보다 탤런트가 1518명(12%), 가수는 149명(3.84%) 늘어났다. 모델은 1192명 줄었다.

이들의 연소득을 보면 가수가 평균 3832만원으로 2010년보다 42% 늘었다. 배우는 3437만원(3.31%), 모델은 887만원(49.58%)이다.

가수의 연소득은 근로소득자 평균 연봉(2817만원)보다 36%, 배우는 22% 많다.

한편 국내에서 활동하는 프리랜서는 32만7898명으로 전년보다 6.23% 늘었다. 소득액은 49조7102억원으로 9.65% 높아졌다. /김학철기자

"서울 언제 가나?" 주차장 대관령
1일 동해안에서 해맞이를 하고 귀경하는 차들이 몰리면서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구간이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했다 /연합뉴스

www.hsedu.co.kr

서울 도심속 유일한 한샘기숙학원 목동본원

빠르고 정확한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2013학년도 수능 성적 향상

성별	언어		수리		외국어	
	2012 수능	2013수능	2012 수능	2013수능	2012 수능	2013수능
선*희	3 등급	2 등급(97점)	1 등급	1 등급(100점)	1 등급	1등급(100점)
권*환	4 등급	2 등급	5 등급	1 등급	5 등급	3 등급
박*훈	4 등급	3 등급	4 등급	2 등급	5 등급	2 등급
김*일	6 등급	4 등급	6 등급	3 등급	6 등급	4 등급
이*하	4 등급	4 등급	3 등급	1 등급	3 등급	2 등급
고*철	5 등급	1 등급	3 등급	2 등급	2 등급	2 등급

한샘을 만나면 합격이 보입니다!

> 1:1 질의응답을 통한 수학전문 전문 프로그램
> 최고의 강사진 어느 기숙학원보다 우수한 강사들의 접근성이 쉽다
> 2중 담임제를 통한 특별 관리형 시스템
> 진학사와 연계한 입시 컨설팅으로 전문적인 입시상담
> 24시간 집중 관리하는 고시공부식 기숙학원

정규반 개강 2월 14일(월)

한샘 기숙학원 목동본원 입/시/상/담 02)2646-1122

<하수처리장 연계시스템> <폐수 수탁업체> <시설별 처리 가능량>

만들고 위탁하고 조정하라!

시 음식물쓰레기 종합대책 추진…상황실도 운영

새해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폐수(이하 음폐수)의 해양 배출이 금지됨에 따라 부산시가 음식물쓰레기 처리 종합 대책을 마련, 추진한다.

1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하루 평균 880t의 음폐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709t은 육상 처리하고 171t은 바다에 배출해왔다.

그러나 새해부터 음폐수의 전량 육상 처리로 인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부산시는 이에 따라 음폐수를 인근 하수처리장에서 최종 처리하는 연계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폐수 수탁업체에 위탁 처리토록 해 전량 육상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설별 처리 가능량을 파악해 조정하고 구·군별 대책을 마련토록 하는 등 사전 준비 작업을 마쳤다.

이와 함께 2013년부터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만 세대를 대상으로 RFID(무선 주파수 식별) 기반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하는 것을 비롯해 ▲다량 배출 사업장 대상 음식물쓰레기 컨설팅 ▲학교 음식점 등 방문 교육 등 다양한 감량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음식물쓰레기 종합상황실을 시와 구·군에 설치,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안정화될 때까지 운영한다.

종합상황실에서는 제도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한편 음식물쓰레기 발생량과 처리 과정을 매일 점검하게 된다. 또 음식물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도 함께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김수미기자 ksm@metrobusan.co.kr

국내 최대 태양광발전 타워 위용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동에 들어선 '해양솔라파크'.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규모가 크고 높은 태양광발전 타워로 타워동과 함께 전망대, 전시동 등으로 구성된다. 철골 타워 높이는 136m. 해양을 상징하는 원형 전망대에서는 남해의 풍경은 물론 부산 신항과 거가대교까지 한눈에 들어온다. /연합뉴스

폭설 피해…뼈대만 남은 비닐하우스 30일 부산 강서구 대저2동에서 강서구청 직원들이 무너진, 토마토 재배 비닐하우스에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 28일 새벽 남부지역에 내린 폭설로 부산 강서구 대저동 일대의 비닐하우스 1320동이 내려앉아 6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시내버스 1100대에 임산부 배려석 운영

부산시는 임산부들을 배려하고, 출산 가족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시내버스 1100대에 임산부 배려석을 지정·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임산부 배려석은 기존 노약자석 6석 중 1석을 임산부 배려석으로 지정한 것이다.

이 좌석 앞면에는 임산부 배려 엠블럼, 뒷면에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도시 부산' 홍보문구를 적은 분홍색 좌석커버를 씌워두고 이 자리를 임산부에게 양보해 주도록 했다.

시내버스 임산부 배려석 지정은 출산율 증가를 위한 민관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부산시가 아이낳기좋은세상 부산운동본부와 부산시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과 함께 추진했다.

시와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은 앞으로 임산부 배려석을 확대할 예정이다.

부·울·경 광역교통 환승할인 확대된다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올해는 부산·울산·경남 등 동남권 광역교통본부 간의 광역교통 환승할인제가 확대될 전망이다.

동남권 광역교통본부는 부산~울산, 부산~창원 간 광역교통의 환승 수요, 문제점, 재정 부담 등 광역교통 환승할인제 확대 타당성에 대한 연구조사 용역을 2013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본부가 지난해 9월 부산, 울산, 경남 창원시 등에 광역교통 환승할인제 타당성 조사 추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광역교통 환승할인제 수혜자 및 수혜범위와 재정적 부담 등에 대한 타당성 연구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동남권 광역교통통의회에서 부산~(양산)~울산, 부산~창원 간 동남권 광역교통 환승할인제 타당성 연구조사 용역을 올해 시행키로 의결하고 필요한 예산 5000만원을 확보했다.

현재 동남권지역의 광역교통 환승할인제는 2011년 5월부터 부산~양산, 부산~김해 간 시내버스, 마을버스, 도시철도에 대해 시행하고 있다. 부산·울산·경남은 환승할인제 시행으로 2012년 재정지원액이 부산김해경전철 환승손실 보전금을 포함해 총 69억 원을 집행했다.

12세 이하 예방접종 무료

B형간염 등 11종 지원

부산시는 1월부터 12세 이하 아동들의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전액 무료로 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주사하지만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국가에서 80%를 지원하고 본인이 20%인 5000원을 부담해왔다.

시는 민간의료기관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5000원도 시비로 지원해 전면 무료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올해 예산에 시비 25억원을 반영, 12세 이하 아동 접종대상 14만여 명에게 무료 접종할 계획이다.

이번에 지원하는 백신은 결핵(BCG/피내용), B형 간염, 소아마비(IPV), MMR, 수두,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디티피-폴리오혼합백신(DTaP-IPV), Tdap, 파상풍·디프테리아(Td), 일본뇌염(JEV-사백신), 뇌수막염(Hib) 모두 11종이다. 무료지원 접종은 1월부터 12월까지 해당 구·군 보건소가 위탁한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 받을 수 있다. 접종 가능한 민간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nip.cdc.go.kr)에서 검색 가능하고 자세한 문의사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금리 인하

부산시가 새해부터 중소기업의 육성자금 대출금리를 5.5%로 인하한다.

시는 부산은행을 통해 지원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금리를 1월 1일부터 기존 6.29%에서 0.79%포인트 낮춘 5.5%를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당초 인하폭을 0.3%포인트로 잠정 결정했으나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인하폭을 확대했다.

또 매년 금리 조정을 통해 시중금리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결정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운전자금을 전년 대비 200억원 늘어난 30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고층아파트 재도색 심의 의무

올해부터 부산지역에서 고층아파트 외벽을 새로 도색할 때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색채심의가 의무화된다.

시는 16층 이상 공동주택 재도색 때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디자인 조례 개정안을 지난해 말 공포한데 이어 오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공동주택 재도색 심의는 아파트 건축 사정에 받는 색채 디자인 심의와 달리 색채 계획에 대한 간략한 심의로 진행된다.

종합 버스터미널 경관 개선

부산시는 부산역·김해공항과 더불어 대표적 관문인 종합버스터미널의 이미지를 높이고 방문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표지판 정비 등 터미널 경관 개선사업을 마무리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9월부터 사업비 1억9000만원을 들여 터미널의 각종 안내표지판 169개를 바꿔 다는 등 관문 경관 개선사업을 벌였다.

이곳 표지판은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홍동식 교수가 디자인을 맡아 짙은 색 바탕에 하얀색 글자로 눈에 잘 띄도록 단장했다. 또 글자체는 부산 고유의 부산체를 사용해 부산의 정체성을 높이도록 했다.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 1층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인 겸 편집인 남궁호
사장 편집인 김종학
부산지사장 직대 김보준
서울광고문의 (02)721-9851,3
부산광고문의 (051)669-2130
독자센터 (02)721-5692

유치원 종일반 강사도 무기계약직

부산시교육청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책 발표

방과후학교 코디 등 포함 40개 직종 - 연봉 2.8% 인상

부산시교육청은 올해부터 무기전환 대상 직종을 전체 학교회계직의 85%인 40개 직종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학교회계직원 처우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라 올해부터 유치원 종일반 강사,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 도서관 개관 연장 실무원 등이 무기계약 대상 직종에 포함된다. 또 전체 학교회계직원의 36%를 차지하는 조리사, 조리 종사원의 근무일수가 260일에서 275일로 상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학교회계직원의 연봉(기본급)을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같은 2.8% 인상하고, 가족수당 중 셋째 이후 자녀 가산수당을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유급 병가일을 연 6일에서 14일로 확대한다.

학교회계직 인건비 및 처우개선 등으로 인한 예산은 2012년 1466억원에서 2013년 1753억으로 287억원이 증액된다.

부산교육청의 처우 개선책을 내놓지만 학교비정규직노조는 방과후 코디네이터의 전원 재계약과 무기계약 전환, 교육감을 사용자로 하는 직접 고용 및 단체교섭 등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부산교육청은 학교장이 아닌 교육감의 직접 고용 주장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최종 판결 결과에 따라 단체교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수근기자 ksn@metrobusan.co.kr

해운대 일출 30만 인파 계사년 새해가 밝았다. 1일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30만 명 시민들이 일출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SOS 국민안심 서비스 시행

부산경찰청은 올해부터 부산지역의 모든 미성년자와 여성을 대상으로 'SOS 국민안심 서비스'를 시행한다.

'SOS 국민안심 서비스'는 범죄에 취약한 어린이, 여성이 위기상황에서 말인 올래 휴대전화 등으로 말 없이 신고하더라도 경찰이 신고지의 위치를 확인, 즉시 출동해 구조해주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통신기기에 따라 원터치 SOS(휴대전화, 스마트폰), 112 긴급신고앱(스마트폰), U-안심(전용단말기) 서비스로 구성된다.

현재 서울, 경기 남부, 강원, 충북, 경남, 전남, 제주 등 일부 지역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원터치 SOS와 112 긴급신고앱은 2013년부터 부산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미성년자와 여성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미성년자나 여성은 가까운 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경찰서)를 방문해 가입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초등학생의 경우는 학교에서 단체로 가입할 수도 있다.

산복도로 르네상스 백서 발간

부산시가 올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산복도로르네상스 프로젝트의 모든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안내서가 발간됐다.

'산복도로, 다시 만나다!'라는 제목의 이 안내서는 소책자 크기의 170페이지 분량으로 산복도로르네상스 사업 추진 과정 소개와 사업 시행 전·후,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산복도로 마을의 변화상을 체계적으로 담은 산복도로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종합백서다.

이 책은 ▲안녕! 산복도로 ▲함께해요 산복도로 ▲다시 만난 산복도로 등 3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국제수산물도매시장 초매식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은 계사년 새해 초매식을 2일 오전 9시 도매장동 1층 경매장에서 3개 법인별로 개최키로 했다.

이날 초매식에서는 출하선사,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등 시장 관계자들이 올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각오를 다짐한다.

초매식은 새해 안전조업과 풍어를 기원하는 고사를 지낸 후 첫 경매로 업무의 시작을 알릴 예정이다.

이어 우수출하자 등에 대한 시상식도 열 계획이다.

기차 타고 떠나는 남대천 얼음축제 어때

송어 낚시, 썰매 타기, 얼음조각체험, 연날리기 등 겨울철 대표 놀이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기차여행 상품이 나왔다.

코레일 부산경남본부는 '무주 남대천 얼음축제 기차여행'을 오는 12일 하루 일정으로 운행한다고 1일 밝혔다.

여행 당일 오전 6시10분 부전역을 출발하는 열차는 해운대역, 남창역, 태화강역, 호계역 등을 거쳐 충북 영동역에 오전 10시55분께 도착한다.

이후 관광객은 전세버스를 타고 무주 반디랜드로 이동해 자유관광을 한 뒤 무주 남대천 얼음축제장에서 오후 5시까지 얼음축제를 만끽할 수 있다. 돌아오는 열차는 영동역에서 오후 6시 10분께 출발한다.

무주읍 무주교~당산대교에 이르는 10만㎡ 면적의 얼음판 위에서 '자연의 나라-무주 추억의 동심 속으로!'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무주 남대천 얼음축제 축제장에서는 직접 얼음을 뚫고 낚은 송어를 싱싱한 회와 숯불구이로 맛볼 수 있는 송어 낚시를 비롯해 썰매 타기, 얼음 미끄럼틀 타기 등이 마련됐다. 문의 051)440-2611

"한번 더 쇄신" "철저히 반성"

새누리·민주 새해 각오

지난해 큰 선거를 두 번이나 치른 여야는 1일 각각 환희에 찬 모습과 패배를 아겨내자는 당부로 새해를 맞았다.

대선에서 승리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이제 지나간 과거의 모든 것은 털어버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창출해나가기를 염원한다"며 "새로운 미래와 변화를 위해 더 같이 힘을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은 "대선 승리가 우리 허물에 대한 면죄부는 결코 아닐 것"이라며 "다시 한번 쇄신의 정신을 모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앞서 오전 8시30분께 당직자들과 함께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박 당선인은 방명록에 "국민 염원에 부응한 새 희망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고 적은 후 이승만·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반면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박 당선인 측과 현충원 참배 시간이 겹쳐 약 10여 분간 전세버스 안에서 시간을 보낸 후 현충원을 참배하고 4·19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서울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열린 단배식에서는 성찰과 반성을 재촉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패배의 아픔이 쌓인 우리 가슴에도 새해가 밝았다"며 "철저히 반성하고 처절하고 기획하리만치 평가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려는 마음과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유리기자

선관위 "개표부정 의혹 유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선 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제기된 제18대 대통령선거 개표 부정 의혹에 대해 "개표 과정은 투명했다"고 진화에 나섰다.

선관위는 1일 "대선을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유감스럽게도 일부에서 개표 결과에 의혹을 제기하며 재검표를 요구하고 있다"며 "제기된 의혹들은 하나같이 객관적 증거나 사실관계 확인 없이 추측 또는 확대 해석한 것이어서 참으로 안타깝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선관위는 "무엇보다 투표지 분류기의 집계 결과는 최종 결과가 아니며 심사집계부와 위원 검열석에서 육안으로 재차 대조·확인하고 이 과정을 개표 참관인이 확인하므로 투표지 분류기를 통한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김승리기자

제과제빵 / 커피바리스타 / 케익디자이너 / 초코렛 / 케익카페실무반

제과제빵 자격증 국비지원과정
제과, 제빵 평가등급 "A"

◆ [illegible] ◆

교육과정	교육기간	교육시간	총교육비	자비부담금	비고
바리스타(카페창업과정)(오후반)	2013. 1. 29 ~ 2013. 3. 18	09:30 ~ 12:30	900,000	405,000	바리스타자격증
제과자격증취득반 (오후반)(212H)	2013. 2. 12 ~ 2013. 4. 9	14:20 ~ 18:20	750,000	187,500	제과자격증+현장실습
제빵자격증취득반 (오전반)(212H)	2013. 2. 25 ~ 2013. 4. 22	09:20 ~ 13:20	750,000	187,500	제빵자격증+현장실습
준비서류	내일배움카드, 신분증, 증명사진 3장				

◆ 재직자 수강지원금 과정 ◆

교육과정	교육기간	교육시간	교육비	[illegible]
교육대상	[illegible]			
제과제빵(토)오후반	2013. 1. 5 ~ 2013. 4. 3	15:00~18:00 (14회 총42시간)	250,000 [illegible]	선착순 마감
제과자격증(화목)반	2013. 1. 15 ~ 2013. 4. 4	19:20~22:20 (24회 총72시간)	330,000 [illegible]	선착순 마감
제빵자격증(월수)반	2013. 1. 10 ~ 2013. 4. 2	19:20~22:20 (24회 총72시간)	330,000 [illegible]	선착순 마감
준비서류	[illegible] (카드,현금) / 국비지원 50~60% 지급			

산재국비무료교육 (100%지원)

연산국제제빵커피학원
FAX. 051) 864-8550

cafe "연산국빵" www.cakebread.co.kr

새누리당 신년인사회 참석한 박 당선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왼쪽 오른쪽)이 1일 새누리당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건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무 끝나면 제자리 복귀

박 당선인 인수위 추가 인선 오늘 발표…위원회 주중 출범할 듯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추가 인선이 2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출범 시기는 주중에 이뤄질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박 당선인은 1일 오전 국립현충원 참배와 당 신년인사회 참석 후 외부 일정을 잡지 않고 인선 구상에 집중했다.

당내에서는 이미 20여 명의 인수위원 명단이 박 당선인에게 제출됐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검증이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정부기관에서 인수위로 파견되는 전문위원 명단도 이를 전 2배수로 압축돼 박 당선인 측으로 넘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 검증은 국무위원 후보자보다 지금도인 수준에서 현행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과 기록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관측됐다.

박 당선인 측이 앞서 "인수위원·전문위원 등은 법에 정해진 임무가 끝나면 각자 원래 자리로 복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공언한 것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실었다.

즉 인수위원이 차기 정부에 발탁될 가능성을 배제한 만큼 인사청문회의 단골 메뉴인 병역 기피·탈세 등에 대한 "조정된 검증"을 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친박(친박근혜) 진영의 한 의원은 "대선 공약을 성안했던 국민행복추진위 인사들로 인수위를 1차 인선하고, 내각과 청와대 구성원은 좀 더 긴 호흡으로 2차 인선하겠다는 뜻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앞서 박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24일 비서실장과 수석 대변인, 27일 인수위원장단 등을 발표했다.

박 당선인은 이어 같은 달 31일 국정기획조정위원회, 정무위원회, 법질서사회안전위원회, 여성문화위원회 등 9개 분과로 구성된 인수위 조직 및 기구를 발표했다.

인수위 전체 규모는 이명박 당선인 당시 인수위 규모보다 80여 명 줄어든 100여 명 안팎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김유리기자 grass100@metroseoul.co.kr

새벽 1시30분 의총 열고 원내대표 4차례 협상

긴박했던 '1박2일 예산안 협상' 현장 재구성

새해 예산안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기면서 처리되는 동안 여야는 1일 오전 0시부터 긴박하게 움직였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1일 오전 1시30분께 각각 긴급의총을 소집한 데 이어 여야 원내대표가 강창희 국회의장 주재로 협상을 벌이는 등 역대 국회에서도 보기 드문 이례적 상황이 전개됐다.

지난해 12월 31일 예산결산특위가 전체회의에서 오후 11시10분께 342조원의 예산안을 통과시킬 때만 해도 자정께 본회의 처리가 당연시되는 분위기였다.

막판 쟁점은 제주해군기지 예산이었다. 여야는 군항 중심 운영에 대한 우려 불식 등 내용을 담은 3개 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예산안 처리가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민주당은 제주지역 의원들과 일부 초선의원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자 앞선 3개 항 이행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뒤 예산을 집행하자는 수정안을 내놨다.

이한구 새누리당·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강창희 국회의장 주재로 협상 테이블에 앉았으나 민주당의 수정안이 나와 타협점을 찾지 못하다 여야 만든 지 4차례 만에 합의에 이르렀다.

특히 새누리당 측은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요구하며 압박했으나 강 의장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 첫 살림살이가 될 예산안 처리가 해넘기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이 불건 분이 커지자 우려를 표명하며 불만을 토로했다. /김유리기자

4860 우리 모두가 알고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2013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4,860원
부산고용노동청
www.moel.go.kr/busan/ 국번없이 1350

어서 와요/2013년

2013년 새해를 맞은 지구촌 곳곳에서 불꽃놀이와 카운트다운 등 화려한 축제가 다채로웠다.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에 모인 시민들은 뜨거운 키스로 새해맞이를 축하했고 영국 런던 국회의사당에 위치한 시계 탑 '빅벤(Big Ben)'에서는 새해를 알리는 축하 불꽃이 하늘을 수놓았다.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신년맞이 행사에는 2013을 형상화한 모자를 쓴 여성들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로이터·AP·AFP·연합뉴스

미 버스사고 사망자 5명 한국국적

생존자 "운전사 과속탓"

"버스가 너무 빨리 달린다고 느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오리건주 고속도로에서 빙판길 전복사고를 당한 관광버스 승객 중 일부가 이같이 생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버스에 탑승했던 유모(25)씨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승객들도 버스 운전기사가 규정 속도를 지키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팔과 다리에 골절상을 입은 서재민(24·성균관대 휴학 중)씨는 "직감적으로 버스가 빙판길에 미끄러지고 있다고 느꼈다"며 "굴러떨어진 버스에서 어린 딸을 찾는 부모들이 울부짖고 고통스런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정말 생지옥이었다"고 전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어학연수 중인 강석원(25)씨는 "사고 후 구조대가 오는 데 5분밖에 걸리지 않아 그나마 다행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고는 지난달 30일 미 오리건주 동부 펜들턴 인근 84번 고속도로에서 일어났다. 참사를 당한 캐나다 밴쿠버 한인 여행사 소속 전세버스에는 39명이 타고 있었으며 한국 국적 5명을 포함한 9명이 사망하고 30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국명기자

12월 31일 밤 10시의 '기적'

美 '재정절벽'협상 2시간 앞두고 타결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 '부자 증세'

전 세계 금융시장의 최대 부담이었던 미국의 '재정절벽(Fiscal Cliff)' 문제가 협상 마감시한(12월 31일 자정)을 두 시간여 앞두고 타결됐다. 이에 따라 한국 등 전 세계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AP 등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행정부를 대표한 조 바이든 부통령과 공화당 상원 협상 당사자인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는 부부 합산 연소득 45만 달러 이상, 개인 소득 40만 달러 이상 고소득층의 소득세율을 현행 35%에서 39.6%로 올리는 이른바 '부자 증세안'에 전격 합의했다. 20년 만에 미국 의회가 증세를 수용한 것이다.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은 이날 밤늦게 이 같은 합의안을 통과시켰고,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에서는 새해 1월 1일 표결 준비 작업에 들어가 2일이나 3일께 최종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날 극적으로 타결된 재정 절벽 협상에 대해 "아직 완전히 성사된 것은 아니지만 거의 눈앞에 있다"고 언급하며 우려와 기쁨의 표정을 짓고 있다. /AP·로이터=연합뉴스

휴가지 하와이에서 급거 상경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에둔비 중산층의 '보통 시민들'을 초청한 가운데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정절벽 협상 타결이 완전히 성사된 것은 아니지만 거의 눈앞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 경기부양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감세 혜택과 정부 지출이 동시에 줄어들면서 경제를 얼어붙게 할 정도로 미국 경기가 급하강하는 재정절벽 상황은 당분간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전문가들도 이번 협상 타결로 금융시장을 억눌러왔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투자심리가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단기적으로 미국 경제성장률 둔화는 불가피하지만 성장을 멈추지는 않을 것"이라며 "유동자금이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와 당분간 우호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상당수 공화당 의원들이 소득 계층을 막론하고 증세 자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를 근거로 하원에서 합의안이 좌초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today metro global 지금 클릭! metroseoul.co.kr

- 새해 소망 첫번째는 경제 살리기
- 시골 교사 월급 안주는 중국정부

다나은내과
www.danan.kr

국민 암 예방 수칙

1. 담배를 피우지 말라.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도 피하라
2. 주5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 땀 날 정도로 운동하라
3. 음식을 짜게 먹지 않고, 탄 음식을 먹지 말라
4. 발암물질을 노출시키지 않도록 작업장 안전수칙을 지켜라
5. B형 간염 예방주사를 맞아라
6.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라
7. 안전한 성생활을 하라
8. 술은 하루 두잔 이내로만 마셔라
9. 자신의 체격에 맞는 건강 체중을 꾸준히 유지하라
10. 암 조기 검진 지침에 따라 암 검진을 빠짐없이 받아라

코로 하는 구역질 적은 위내시경 ▶당일 대장내시경◀

다나은내과의원
진/료/문/의 639-5333~4
현대백화점 옆 지하철 범일동역 7.9번 출구

국제제과제빵 커피전문학교
제과제빵 커피 국비훈련생 모집

교육과정안내

	과정	교육비	
재직자	제과제빵기능사 1.12~4.3 (토 09:30~13:30)	240,000원 (교재비, 재료비 3만원 별도)	국비50%~90%지원
실업자계좌제국비	커피바리스타 초급 1.24~2.20 (10:30~12:30)	총교육비 550,000원 본인부담금 45% (247,500원)	
	커피바리스타 고급 1.21~2.14 (14:00~17:30)	총교육비 750,000원 본인부담금 45% (337,500원)	
중고생과정	제과제빵자격증반 (15:30~21:30)	중·고생 할인가 280,000원 (일반 330,000원)	
	케익디자이너반 (15:30~21:30)	중·고생 할인가 300,000원 (일반 350,000원)	

464-8333
서면일번가 100m지점

Nikkei (일본)
10395.18 (+72.20)
Hang Seng (홍콩)
22656 92 (+9 67)
Shanghai (중국)
2269 13 (+35 80)
Dow Jones (미국)
13104.14 (+166 03)

EXCHANGE RATE

달러	1063 00
엔 (100)	1235 04
유로	1401 67
위안	170.65

네이버 뉴스 클릭하면 언론사 홈피 팝업

국내 1위 포털 네이버가 1일 뉴스스탠드 서비스를 시작했다.

뉴스스탠드는 네티즌이 원하는 언론사를 선택해 조합을 할 수 있고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 상단을 그대로 보여준다. 2009년부터 이어온 개별 기사 단위의 뉴스 구성인 '뉴스캐스트'와는 180도 다른 성격의 서비스다.

무엇보다 '와이드뷰어' 창을 새롭게 도입, 언론사의 실시간 기사를 넓은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고

취향대로 언론사 고르고 종이신문 느낌 UI도 신선

좌우 화살표나 하단 매체 브랜드만 클릭하면 손쉽게 여러 언론사의 뉴스를 읽을 수 있다. 종이 신문 느낌이 나는 UI를 적용한 것도 포인트다.

뉴스스탠드에 대한 첫인상은 나쁘지 않은 편이다. 대다수 네이버 이용자들이 새로운 시도에 대해 "긍정적이다" "향후 행보가 기대된

'스탠드' 서비스 첫선

다"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아이디 adue***를 사용하는 네티즌은 "낚시성 기사나 선정적인 글을 원천 차단할 수 있어 좋다. 기사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로 이동하는 것도 참신하다"고 인터넷 게시판에 후기를 남겼다.

하지만 네이버가 상생을 위해 조만간 와이드뷰어 상단의 배너 광고

새 유형의 낚시기사 등장 콘텐츠 유료 가능성 커져

와 PDF 유료화에 나설 계획이라는 점에서 의견이 엇갈린다. 지금까지는 언론사 와이드뷰어 화면에 배너 광고가 없지만 추후에 광고가 들어오면 이와 연계한 또 다른 성격의 낚시성 기사가 상단 화면에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PDF 유료화를 시작하면 무료 이용자의 콘텐츠 접근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온라인게임에서 주로 이용하는 부분 유료화 생계 모델이 뉴스 시장에도 안착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뉴스스탠드 상단의 '네이버뉴스' '연예' '스포츠' 등을 클릭하면 기존 뉴스캐스트와 동일한 형태의 개별 기사 모음 형식의 편집이 나타나 뉴스스탠드 시행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손님 뜸한 5일장터 "더 춥다" 1일 새해 첫날 충북 증평군 증평읍 5일장터는 이른 아침부터 내린 눈과 혹추위에 장을 보러 온 사람의 발길은 뜸했지만 서민의 삶은 고스란히 묻어나고 있다. /뉴시스

꽁꽁언 부동산 시장 상반기에도 춥지만 하반기 수도권 '해빙'

새해 부동산 시장은 '하반기 수도권 상승'으로 요약될 전망이다.

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세계 경기침체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공백기,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 등으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상반기에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가격 바닥론이 제기되고 새 정부의 부양 대책이 본격적으로 나오면 부동산 시장은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다만 과거처럼 대세 호황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수도권과 세종 등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은 약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보업체 리얼투데이는 최근 3년간 약세를 이어온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전세가격 상승과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 새 정부 부동산 정책 등의 요인으로 하반기에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상반기에는 불안한 세계 경제와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 권력 공백기 등 시장 회복을 이끌 만한 요인이 없다.

새 정부 정책도 초기에는 전셋값 안정과 서민 주거 안정 대책 위주로 발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됐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전셋값이 매매가 턱밑까지 추격하면서 매매 수요는 늘어나고 금리 인하, 부양 정책 등 긍정적인 요인이 많아 하반기에 매수심리가 살아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성훈기자 zen@

수출 4%대 증가… 희망 살아있네

지경부 올해 수출입 전망 美 中 경기회복서 긍정적

올해 우리나라의 수출은 4%대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수입도 늘어날 전망이다.

1일 지식경제부는 "2013년 수출입 전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경부 관계자는 "미국 대EU 수출은 재정위기 등으로 높은 증가세를 기대하긴 어렵지만 신흥국은 높은 성장세에 힘입어 수출 호조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진국의 내구재 수요가 완만하게 회복하고 있고 미국과 중국 경기도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어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가 뒷받침이 됐다. 지경부는 올 수출은 IT와 일반기계를 중심으로 4.1% 증가한 5705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품목별로는 LTE 서비스 확산 등으로 무선통신기기와 일반기계는 7% 이상, 석유화학, 선박, 반도체, 자동차, 석유 제품 등은 0~7%의 완만한 증가세가 예상됐다.

수입도 5.0% 증가해 545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무역수지는 전년보다 4.5% 증가한 250억 달러가 전망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수입은 국제 유가는 안정세를 보이겠지만 국내 소비심리 회복, 원달러 환율 하락 등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품목별로는 원유, 석유 제품의 수입은 늘고 가스, 석탄, 철강제품은 큰 폭 감소가 전망됐다.

/김지성기자 lazyfand@

IT기기 역무중고상
IT마트
중고노트북,컴퓨터,태블릿PC
스마트폰 등 IT 디지털기기 매입,판매전문
컴퓨터,노트북,프린터 렌탈 월 30,000원~
www.it-mart.net
1599-1175
010-2640-2540

대학생만 나오는 '솔로대첩' 정례화

메트로신문 대학생기자 '새해 희망뉴스' 카톡 대담

사실(蛇蝎) 속히 계사년 새해 첫날이 밝았다. 누구에게나 바라가지겠지만 할 일 많고 꿈도 많은 20대 청춘들에게 새해의 의미는 남다르다. 겨울방학 기간이지만 학기 때보다 더 바쁜 메트로신문 대학생 기자 7명이 만났다. 고향에서, 교환학생으로 있는 미국에서, 봉사활동 중인 라오스에서 새해 첫날 카카오톡으로 새해 희망에 대해 한바탕 수다를 떨었다.

/정리=탐종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희망님이 대학생 기자 서동호, 신정아, 이승용, 이영화, 윤지주, 장희재, 최지윤 님을 초대했습니다

메트로 안녕하세요^^ 다들 떡국은 든든하게 드셨겠죠. 방학 기간인데 잘 지내고 있나요?

서동호 저는 고향인 제주도에서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있답니다ㅎㅎ

최지윤 저도 부산 고향 집에 내려와 있어요

장희재 좋겠네요ㅎ 저는 계절학기 수업을 두 개나 듣고 있어요ㅠㅠ

이영화 저는 미국에서 교환학생 중이에요

윤지주 라오스에서 해외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와이파이가 잘 안 터지네요^^

이승용 저는 다음 학기가 졸업이라 취업과 졸업 준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ㅋ

신정아 저는 공기업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메트로 새해 새 정부에게는 희망사항을 이야기해 볼까요. 이번 대선을 어떻게 보셨나요.

최지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탄생한 만큼 여성 리더를 많이 양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저기 면접을 보고 인턴을 하다 보니 기업에 여성 임원이 매우 적다는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뒤에도 꾸준히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마련해줬으면 합니다

장희재 공대에 다니는 여학생으로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우리나라 최초의 공대 출신 대통령이자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라는 사실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기회에 여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길 바랍니다. '남자가 스펙'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여학생의 취업문은 좁거든요

서동호 여성 대통령 탄생이 일반 여성의 생활 여건 향상과 직결될지는 지켜봐야겠죠. 이번 대선처럼 세대 갈등이 두드러진 선거는 드물었다고 생각해요. 당선인께서 이를 수습하려는 노력을 보이셨으면 합니다.

윤지주 맞습니다. 사회 문제를 계층적 접근으로만 해결하려 하지 말고 더 큰 눈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짝짝짝! 여성 대통령 시대 '남자가 스펙' 이제는 옛말 반값등록금 공약만은 꼭!

메트로 대학생으로서 반값등록금에 대한 관심도 크겠습니다

서동호 그럼요! 박 당선인이 반값등록금 공약을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곧 등록금 납부일인데 많은 학생들이 현행 대학 등록금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이승용 저는 가장 큰 문제는 교육의 질인 것 같아요. 등록금은 계속 오르지만 교수의 질, 강의실의 질, 강의의 질이 오르는지는 회의적이거든요. 등록금 대비 교육의 질이 현저히 낮은 게 사실이에요. 반값등록금을 현실화하는 것은 물론 정부 지원의 혜택이 정교수 임용 비율 확대 등으로 이어지면 할 것 같아요. 반값등록금의 핵심은 가격은 낮추고 질은 높이는 것이니까요.

장희재 저는 당선인께서 대학 서열화 문제도 시정해 주셨으면 해요. 프랑스처럼 파리1대학, 2대학식으로 대학 구조를 개편하면 어떨까요. 종합대학 비대화도 심하니까요.

이승용 일단 부실 대학 등을 없애 대학의 수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을 가지 않아도 다양한 장래가 보장되는 사회가 만들어진다면 대학 서열화에 대한 논쟁도 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지윤 등록금 모아 놓고 안 쓰고, 장학금 안 주는 사립대학들도 문제죠

메트로 이번엔 아르바이트 현장의 문제에 대해 얘기해 볼까요

서동호 대선 토론 때 보니까 박 당선인께서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잘 알고 계시더군요.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최저임금의 실질적 준수 여부를 감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저임금 안줘도 알바하고 싶어하는 애들은 널렸다"며 배짱 부리는 고용주들 정말 많거든요. 임금 체불도 빈번하고요.

윤지주 맞아요. 최저임금이 올해부터 4860원이잖아요. 저는 솔직히 생활 물가나 노동 강도 등을 따져 보았을 때 최저 6000~7000원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최지윤 노동부에서 청년 인턴을 시행하고 있는데 문제가 여전히 많은 거 같아요. 무급 인턴이 당연하다는 인식도 팽배하고요.

장희재 이참에 학자금 대출 이자를 낮춰 주면 좋겠어요. 다 등록금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며 알바하는 거니까요

이영화 미국 시골에서 지내보니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지에 대해 많이 느끼고 배워요. 우리나라 20대들은 대학 졸업 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좋게 보는 곳에 취업하려 하잖아요. 당선인께서 젊은이들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탐색하게 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셨으면 해요.

알바 최저임금 준수 여부 정부가 나서 철저히 단속 졸업전 기업 실습 의무화

최지윤 대학생들이 졸업 전 기업과 연계해 의무적으로 실습하게 하면 어떨까 생각해요. 학교 공부와 기업 실무의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신정아 좋은 의견이에요. 저는 공기업에서 알바하고 있는데 지금 하는 일이 장래희망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진로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일자리 창출이 화두이긴 하지만 어설픈 일자리 대신 많은 학생들의 적성을 살리는 쪽으로 일자리 정책을 펼쳐 주셨으면 합니다

이영화 미국은 고학년이 된 후에도 전공을 바꿀 수 있어서 좋아요. 미국 대학생들도 취업과 학업 압박을 받지만 여유가 있고 행복해 보여요. 우리 대학 문화도 이렇게 바뀌면 좋겠습니다

메트로 대학생들의 생활면에서 건의하고 싶은 사항은 없나요?

장희재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브 때 처음 열린 솔로대첩 다들 아시죠. 기대만큼은 아니었지만 재밌었잖아요. 대학생들만 참여할 수 있는 솔로대첩이 주기적으로 열리면 재밌을 것 같아요. 취업과 등록금 고민 때문에 연애하기도 팍팍한 현실 속에서 캠퍼스 같은 낭만을 느끼지 않을까요

이영화 저는 미국에서 교환학생을 하다 보니 자꾸 미국과 비교하게 되는데요. 미국은 담뱃값이 갑당 13달러 정도예요.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1만원이 넘는 돈이죠. 대학생들이 담뱃값이 비싸서 저절로 금연하게 되는 분위기예요

장희재 맞아요. 아예 대학 근처에서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건 어떨까요. 너무 심한가요ㅎㅎ

서동호 저소득 고강도 근로자일수록 흡연율이 높다잖아요. 담배 한 모금으로 큰 위안을 받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담뱃값 인상은 좀 더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영화 미국과 우리나라 대학 모두 술이 문제인데요. 이 때문에 미국은 법으로 대부분의 대학교를 드라이 캠퍼스(dry campus)로 지정해 금주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어요. 우리도 참고했으면 좋겠네요

하드 커버만 사용 안해도 대학교재 가격 거품 빠져 담뱃값 올려 금연 글쎄요

장희재 개강하면 교재 구입할 일이 많아지잖아요. 원서, 번역서 등 대학 교재의 가격 거품을 빼주면 좋겠어요. 개정판이란 이름으로 표지만 바꾸고 가격을 올리는 경우가 부지기수예요. 두꺼운 커버와 고급 종이만 안 써도 책값 거품을 걷어낼 수 있을 거예요.

메트로 우리 젊은이들이 왜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하는 '삼포세대'가 되어가는지 체감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였어요. 마지막으로 대학생 기자들의 새해 소망을 듣고 싶어요^^

서동호 전 식상하긴 하지만 금연과 절주로 잡았습니다

신정아 ㅎㅎ 키가 조금 더 컸으면 좋겠지만 그건 다음 생에서나 가능하겠죠ㅋㅋ 자격증 따고 살 빼는 게 목표예요

이영화 저도 미국에서 찐 살 빼고 꿈에 도전해 성공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장희재 학점이 좀 오르고 원하는 곳에 척척 취업했으면 좋겠어요

이승용 깔끔한 졸업, 의외의 취직이 목표입니다

메트로 박 당선인의 슬로건처럼 올해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네요. 모두들 소원 성취하길 바랍니다!

손끝의 쾌감 종이의 마력

직장인 한상국(42)씨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메트로신문을 넘긴다. 이제 하루 동안 국내외에서 벌어진 뉴스를 20분 내외에 훑어볼 수 있는 데다 신문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손끝으로 전해오는 쾌감을 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출근시간 동안 미처 보지 못한 뉴스는 회사에서 틈틈이 포털을 통해 챙겨본다. 특히 업무와 관련된 뉴스는 '마이뉴스' 등의 설정을 통해 한꺼번에 살펴본다. 퇴근 후에는 가족들과 저녁을 먹으며 태블릿 PC로 좋아하는 스포츠 뉴스를 읽는다. 미리 스크랩했던 기획특집기사는 잠들기 전 한가한 시간에 자세히 읽는다. 시간과 장소에 따라 온·오프라인 신문을 번갈아가며 현명하게 뉴스를 소비하는 셈이다.

최근 '종이신문의 위기'란 말이 확산되고 있다.

79년 역사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지난해 12월 31일자를 끝으로 종이판 발행을 접고 온라인 전용 매체 전환을 선언했고, 파이낸셜타임스(FT)의 독일어판도 같은 해 12월 7일을 마지막으로 폐간하면서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종이신문의 몰락'을 언급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디지털만이 탈출구라며 종이매체를 버리고 디지털만 운영

스마트폰·태블릿PC 시대에 더 빛나는 무료신문

머독의 세계 첫 온라인 전용 페이퍼 2년여 만에 폐간
디지털 온리 전략 결국 소비자들에 외면 스스로 입증

'종이 vs 온라인 싸움' 낡은 사고방식 이젠 벗어나야
값진 콘텐츠 무료이용 독자요구 수용 미디어만 생존

하는 '디지털 온리' 전략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 온리' 전략은 신문의 위기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일례로 언론 재벌인 루퍼트 머독이 창간한 세계 최초의 태블릿 PC용 유료 신문인 더 데일리는 2년여 동안 한 번도 흑자를 내지 못한 채 지난해 12월 문을 닫았다.

반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유료 독자가 오히려 늘어 미국 최대의 신문으로 올라섰다. 지난해 10월 30일 미국 신문발행부수공사(ABC)에 따르면 WSJ는 온·오프라인 구독자가 총 224만 부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4% 늘어났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오프라인 발행부수 못지않게 온라인과 모바일 기기를 통한 유료 독자가 늘어났다는 점이다.

앞에서 언급한 한씨의 사례처럼 시간대별로 오프라인 신문과 온라인 신문을 번갈아 소비하는 독자층이 크게 늘어난 셈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종이신문 대 온라인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로는 현재의 위기를 헤쳐나가기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다.

래리 킬먼 세계신문협회 부대표는 "전 세계의 종이신문 독자는 성인 인구의 절반을 넘는 25억 명 이상이고 이는 인터넷 사용자인 22억 명을 넘는 수치"라며 "보존성이 좋고 순서 위조가 어렵고 사람을 끄는 특유의 질감과 냄새를 지닌 종이신문의 장점을 아직까지 온라인 신문이 흉내 내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럼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비법은 있을까. 전문가들은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점점 현명해지고 있는 독자들이 콘텐츠를 어떻게 소비하는지부터 분석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싱가포르 미디어기업 SPH의 제프 탄 전략마케팅 담당 선임 부사장은 "미디어 기업들은 신문의 위기를 내부에서 찾는 인사이드-아웃(inside-out) 개념을 선호하지만 앞으로는 외부 요인인 독자들의 변화를 중시하는 아웃사이드-인(outside-in)으로 변해야 한다"며 "소비자 중심으로 사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온라인의 편리함과 오프라인의 친숙함을 동시에 누리려는 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에 따라 무료 신문과 온라인신문의 적절한 조합을 통해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영국의 대표적인 문화 주간지 타임아웃은 지난해 9월 무료 전환을 선언했다. 1968년 창간된 문화·여행 정보 매체인 타임아웃은 매주 30만 부 분량의 무료판을 발행하는 대신 고정 방문자가 500만 명이 이르는 웹사이트와 모바일 서비스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타임아웃의 팀 이서 편집장은 "인터넷 시대에 인쇄매체로 살아남으려고 무료로 전환하는 결단을 내렸다"며 "런던 시민이 무료 매체를 선호하는 데다 온·오프라인과 연계한 광고에 대한 광고주들의 반응도 좋아 성공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독자의 시간대별 매체 이용 변화 추이

온·오프라인 윈윈성장이 미디어 메가 트렌드

전 세계 언론들이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으로 구현되는 미디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캐나다 최대 일간지 '토론토 스타'를 비롯해 다수의 멀티미디어 기업을 소유한 '스타 미디어 그룹(SMG)'은 독자 세분화 전략으로 돌파구를 찾았다. SMG는 핵심 콘텐츠를 인쇄물로 안정적으로 받들면서 무료 내려받기가 가능한 온라인판을 제공하는 등 디지털 서비스도 확장했다. 그 결과 온·오프라인을 효과적으로 연계해 10대 청소년 등 젊은 독자와 중장년층 독자를 함께 끌어안을 수 있었다.

특히 '토론토 스타'는 글로벌 무료 신문 '메트로'와 업무 제휴를 맺어 독자층을 대폭 넓혔다. 메트로는 밴쿠버, 캘거리, 몬트리올, 핼리팩스 등 캐나다 11개 주요 도시에 배포되고 있다.

오픈 저널리즘을 통한 도약도 눈에 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올해 초 '아기 돼지 삼형제' TV 광고를 내보내며 오픈 저널리즘 시대를 본격 선포했다. 동화를 재해석한 이 광고는 아기 돼지들이 굴뚝으로 침입한 늑대를 죽인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가는 내용이다. 광고에서 가디언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독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아 '아기돼지 삼형제' 기사를 완성시킨다.

이와 관련, 가디언의 앨런 러스브리저 편집장은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로 정보 공유 및 소통 능력이 극대화된 '스마트 군중'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주요 일간지들은 신문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1면을 파격적으로 바꿨다. 워싱턴포스트는 일요판 1면에 독자의 흥미를 끌 만한 기사와 함께 일러스트레이션을 넣었다. 탐사 보도나 특집 기사 등 뜨는 기사를 전면에 배치해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궁지력 있는 이미지를 넣어 시선을 사로잡겠다는 의도다. /조선미기자 [illegible]

올해는 나의 해! 세계를 휘감는다

2013년 빛낼 뱀띠 연예인 누가 있나

뱀띠 스타들이 식지 않는 인기로 2013년 대중문화계를 풍성하게 채운다. 글로벌 스타 싸이를 비롯한 많은 뱀 스타들이 풍요와 불사의 상징인 뱀띠로 계사년을 맞아 이들의 활약은 절정에 이를 전망이다.

가요계 1977년과 1989년생 뱀띠 스타들은 글로벌 K-팝의 주축으로 대거 활약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스타는 1977년생 싸이다. '강남스타일'로 지난해 북미와 유럽, 아시아 음악시장을 호령했던 그는 다음달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남미 지역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또 3월께 최초의 월드와이드 신곡을 발표하고 진정한 월드스타의 길을 다진다. 전미 투어를 개최해 라이브형 가수로서 진가도 뽐낸다.

1989년생들은 인기 아이돌 그룹의 핵심 멤버로 자리잡고 있다. 소녀시대에는 태연·제시카·티파니·유리·효연·써니 등 9명 중 6명이나 포진해 있다. 지난해 개별 활동에 전념했던 이들은 새해 첫 날 4집 '아이 갓 어 보이'를 발표하고 계사년 가요계 장악을 노린다.

윤두준, 용준형, 장현승 등 절반이 뱀띠인 비스트는 연기활동 및 프로젝트 음반 출시로 새해를 열었다. 정용화가 속해 있는 씨엔블루는 3년 전 데뷔일인 14일 새 음반을 발표하고 국내에 컴백한다. 원더걸스의 선예는 현역 아이돌로는 최초로 5살 연상의 캐나다 교포와 26일 결혼식을 올리면서 새해를 맞이한다.

이 외에 원더걸스의 예은, 빅뱅의 대성, 2PM의 우영, 2AM의 조권, 샤이니의 온유, 미스에이의 지아, 티아라의 효민, 유키스의 수현, 시크릿의 효성, 애프터스쿨의 레이나, 제국의아이들의 문준영, 에일리 등 국경을 뛰어넘어 맹활약하는 스타들이 뱀띠 동갑내기들이다.

영화·드라마계 영화·드라마계에도 뱀띠 배우들은 단연 빛난다.

지난해 드라마 '유령'과 영화 '회사원'으로 모두 흥행에 성공한 소지섭, 영화 '아저씨' 이후 올해 3년만의 복귀작을 택할 것으로 보이는 원빈, 드라마 '신의'로 6년만에 안방에 돌아온 미녀스타 김희선 등 정상급 한류스타가 1977년생이다.

싸이

1977년생 싸이·1989년생 소녀시대 등 K-팝 스타 많아
소지섭·원빈·김희선 대표 배우…차세대 주역 김범도

소지섭 원빈 김희선

흥행을 달리고 있는 영화 '나의 PS 파트너'와 SBS 수목극 '대풍수'의 주인공으로 활약하고 있는 지성도 동갑내기다. 이달 첫 방송되는 MBC 수목극 '7급 공무원'의 여주인공 최강희, 10일 개봉한 영화 '박수건달'의 임지원, 영화 '고령화 가족' 촬영 중인 박해일, KBS1 일일극 '힘내요, 미스터 김'에 출연 중인 최정윤, MBC 월화극 '마의'에서 현종을 연기하는 한상진 등은 올해도 변함없는 인기를 이어갈 1977년생 배우들이다.

차세대 주역인 1989년생으로는 다음달 SBS 수목극 '그 겨울, 바람이 분다'에서 조인성·송혜교 등과 호흡을 맞춘 김범, KBS2 월화극 '학교 2013'에 출연 중인 이종석, 김우빈 등이 있다.

1965년생 중견 뱀띠 배우들도 막강하다. 영화 '파에타'의 여주인공 조민수, 지난해 SBS 연기대상을 수상한 드라마 '추적자'의 손현주와 김상중, 드라마·영화·연극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조재현, 조민기, 권해효, MBC 새 주말극 '백년의 유산'을 촬영 중인 전인화 등이다.

1953년생 김영철, 문성근, 박영규, 독고영재, 1941년생 강부자, 김혜자, 나문희, 전무송 등의 활약도 기대를 모은다.

/유순호 권보람기자 sune@metroseoul.co.kr

김덕현
KAIST, Ph D
Management Science
원수현
사이버 명문을 만드는
세계적 교수진
신 • 편입생 모집
Ⅰ. 원서접수 2012.12.1(토)~2013.1.4(금)
Ⅱ. 모집단위
*2013학년도 신설학과
계 열
학 과
인문사회계열
영어학과 / 상담심리학과 / 사회복지학과
노인복지학과 / 아동복지학과 / 경영학과
유통물류학과 / 금융보험학과 / 회계·세무학과
외식창업프랜차이즈학과 / 패션비즈니스학과
*마케팅·홍보학과 / 부동산경매중개학과
부동산개발투자학과 / 부동산경영학과
호텔관광경영학과 / 조리산업경영학과
IT·디자인계열
정보통신학과 / 정보보호학과
모바일콘텐츠학과 / 게임영상콘텐츠학과
만화애니메이션학과
Ⅲ. 상세 모집전형 및 인원은 입학홈페이지 참조
http://www.sjcu.ac.kr/entr
Ⅳ. 문의 02)2204-8000
대 학 원
· 원서접수 2013.1.8(화)~1.30(수)
· 모집학과 정보보호학과
MBA학과 (외식·마케팅유통 경영)
· 문 의 02)2204-8640 http://graduate.sjcu.ac.kr
배성한
New York Institute of Technology
Communication Arts
김지은
Ph.D. Fashion Merchandising
세종CYBER대학교

광화문 ESS어학원과 함께하는 외국어 하루한마디
나랑 한 시간만 시간 때워 줄래?
영 어 Can you kill an hour with me?
일본어 私と一時間だけ一緒に時間を潰してくれますか。
중국어 [illegible]
노동부지원 근로수강 가능
257-3355 www.ess.co.kr

아이돌 그룹 이젠 '유닛 전쟁'

힙합 '인피니트 H'·포미닛 '쌍윤' 등 출격준비 다른 팀 멤버 구성 'SM 더 퍼포먼스'도 선보여

인피니트 H

지난해 주춤했던 아이돌 그룹들이 변칙 구성으로 새해 조가요계 기선 제압에 나선다.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초고속 성장을 해온 인피니트는 팀 내 두 래퍼인 동우와 호야가 결합한 유닛 '인피니트 H'를 출격시킨다. 힙합을 집중적으로 다룬다는 의미에서 팀명에 H를 붙였으며 이달 초 5곡이 수록된 미니음반을 출시한다.

이들은 지난해 여름 국내 콘서트에서 처음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으며, 오래전부터 곡 작업을 해왔다. 다이나믹 듀오·사이먼디 등의 음반 작업에 참여해왔고 지난해 홀로로도 성공한 프라이머리가 이번 음반의 프로듀서로 나선다.

이달 중순에는 포미닛의 전지윤과 허가윤이 결성한 '쌍윤'이 첫 음반을 발표한다. 중성적인 이미지를 보였던 포미닛과 달리 팀 내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두 멤버는 유닛 활동을 통해 여성스러운 매력을 전할 예정이다. 최근 녹음과 뮤직비디오 촬영을 마쳤다.

지난해 여성 그룹 중 가장 성공적인 활동을 펼친 씨스타는 팀 내 두 연장자인 효린과 보라를 앞세워 새해에도 인기 질주를 계속한다. 이들이 결성한 '씨스타 19'는 2011년 5월 첫 음반 '마 보이'로 성공적인 활동을 해 더욱 기대를 모은다.

복고풍의 섹시한 이미지인 씨스타와 달리 한층 성숙한 음악과 퍼포먼스를 보여줄 계획이다. 현재 녹음을 진행 중이며 이달 말 음반을 출시한다.

한 소속사에 몸담은 다른 팀 멤버들의 결합도 눈에 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소속 가수들의 댄스 유닛인 'SM 더 퍼포먼스'를 지난달 30일 선보였다. 동방신기의 유노윤호, 슈퍼주니어의 동해·은혁, 샤이니의 민호·태민, 엑소의 카이·레이 등 7명이 결성해 싱글 '스펙트럼'을 발표했다.

또 비스트의 장현승과 에이핑크의 정은지·김남주는 프로젝트 싱글 '일년전에'를 3일 출시한다.

가요계 관계자는 "소녀시대의 태티서와 애프터스쿨의 오렌지캬라멜 등이 성공한 사례에서 보듯이 유닛은 기존 그룹과 차별화된 음악과 이미지로 팬들의 다양한 기호를 충족시켜 준다"며 "치열한 가요계 경쟁에서 쉼 없이 팀의 인지도를 이어갈 수 있어서 유닛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순호기자

쌍윤

2PM '꿈의 무대' 도쿄돔 선다

4월 공연 아사히·요미우리신문 전면 장식

2PM이 일본 정식 데뷔 2년 만에 도쿄돔 스타 대열에 합류한다.

이들은 1일 현지 유력 매체인 아사히신문과 요미우리신문 전면을 통해 정규 2집 레전드 [illegible] 15일 출시와 함께 4월 20~21일 양일간 도쿄돔 콘서트 개최 소식을 알렸다.

도쿄돔은 약 5만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야구 경기장으로 앞서 장근석·슈퍼주니어 등 쟁쟁한 한류스타들이 거쳐간 꿈의 무대다. 이달 6일에는 한국 걸그룹 최초로 카라가 단독 콘서트를 열 예정이다.

JYP엔터테인먼트 측은 "2PM이 도쿄돔에서만 가능한 다양한 퍼포먼스와 파워풀한 무대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짐승돌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며 기대를 당부했다.

한편 2PM은 11일부터 15만 관객을 불러모으는 아레나 투어에 돌입한다. /[illegible]기자

차티스손해보험 주식회사

부모님 살아계실 때 힘이 되어 드려야지 돌아가신 뒤에 보험금이 무슨 소용이죠?

골절, 화상, 장기 및 뇌손상 1천만원 한도(Active 보험금)
약관에 정한 골절, 화상, 장기 및 뇌손상으로 진단 확정시 약관상 지급률에 따라 지급

중증치매간병비 3천만원
중증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되고, 그 상태가 90일 이상 계속된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골절, 화상 치료비 50만원 지급
상해로 골절, 심재성 2도 이상 화상 확정시 (치아파절 제외)

질병입원일당 첫날부터 2만원(180일 한도)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각 2백만원(최초 1회한)
암진단비 :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하며,
기타피부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갑상선암은 보장금액의 20%지급

50~75세 가입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차티스입니다"

- 납입기간 : 전기납 • 보험료는 상해 1급기준이며 성별, 연령별, 직업별로 상이
- 이 보험은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만기 및 해지환급금이 없음
- 3년만기 재가입특약 상품으로, 매 만기 종료일 전까지 고객이 재가입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별도의 청약절차 없이 최대 90세까지 (선택계약 3,4,5,6은 80세까지) 보험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며 재가입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차티스 **명품 부모님 보험** | 부모님 동시 가입시 10% 할인혜택

1644-9896

월보험료(1인당)

Active 보험금 연령	남자	여자	치매간병비(중증치매) 연령	남자	여자
50~88세	12,540		50세	860	1,770
			60세	3,800	8,980
			70세	21,030	42,730

골절 화상 치료비 연령	남자	여자	질병입원일당 남자	여자
50세	2,690		8,880	6,320
60세			12,850	9,180
70세			18,130	14,720

보장내용	연령	남자	여자
암 진단비	50세	1,720	2,140
	60세	3,510	2,590
	70세	6,110	3,080
뇌졸중 진단비	50세	860	680
	60세	2,840	1,730
	70세	5,520	3,700
급성심근경색진단비	50세	230	90
	60세	800	200
	70세	830	400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만 조심해야 하나요? 보험료도 신경쓰셔야죠!

골절, 화상, 장기 및 뇌손상 5백만원 한도(Active 보험금)
약관에 정한 골절, 화상, 장기 및 뇌손상으로 진단 확정시 약관상 지급률에 따라 지급

암진단비 2천만원 보장
가입후 91일부터 보장하며 최초 1회한 지급
기타피부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갑상선암은 보장금액의 20%지급

뇌졸중(뇌경색, 뇌내출혈) 진단비 2천만원 (최초 1회한)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2천만원 (최초 1회한)

- 가입연령 15~65세 • 납입기간 : 전기납 • 보험료는 성별, 연령별로 상이
- 이 보험은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만기 및 해지환급금이 없음
- 3년 만기 재가입특약 상품으로 매 만기 종료일 전까지 고객이 재가입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별도의 청약절차 없이 최대 90세까지 (일부 담보는 80세까지) 보험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며 재가입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차티스 **큰병이기는보험IV** | 질병/상해으로 인한 질병/상해사망을 보장해드리는 플랜도 상담받으세요

1577-6429

Active 보험금 연령	남자	여자	암 진단비 연령	남자	여자	뇌졸중 진단비 남자	여자	급성심근경색 남자	여자
15~65세	6,270		30세	7,280	7,830	1,200	530	250	270
			40세	6,780	17,570	2,720	880	1,380	530
			50세	[illegible]	[illegible]	8,570	6,410	2,280	830

www.chartis.co.kr

CHARTIS

최수종 '대왕의 꿈' 하차 없다

부상에도 출연 강행 의지 12일 다시 전파

KBS1 대하사극 '대왕의 꿈'이 낙마 사고를 당한 최수종의 출연 의지가 강해 가까스로 극을 이끌어가게 됐다.

드라마 제작진은 1일 "주인공 김춘추 역을 맡은 최수종이 수술 후 안정을 취하면서 드라마 출연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대본 및 스케줄 조정 등으로 치유 기간을 확보해 촬영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수종은 지난달 26일 낙마 사고로 오른쪽 쇄골뼈와 천순등뼈 골절이라는 중상을 당했다. 이 사고로 이번 주말 '대왕의 꿈'은 신년특집 글로벌 다큐로 대체 편성되고, 12일부터 다시 전파를 탈 계획이다.

그동안 '대왕의 꿈'은 연이은 악재에 시달려 수차례 위기를 맞았다. 김유신 역에 캐스팅됐던 최재성은 촬영을 앞두고 낙마 사고를 당해 김유석으로 교체됐고, 선덕여왕 역 박주미도 드라마가 방영 중이던 지난해 10월 교통사고를 당해 결방 끝에 홍은희로 교체됐다. 11일에는 KBS를 상대로 미지급 출연료를 요구하는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의 촬영 거부 투쟁으로 드라마 촬영이 무산되기도 했다. /이조한기자

김태희 "비와 열애중"

새해 첫달 인터넷 달군 핑크빛에 "사귄 지 한달째" 공식 인정

새해 벽두에 한 쌍의 초특급 커플이 탄생했다.

1일 연예계에 한류 톱스타 비(30)와 김태희(32)가 한달째 교제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태희의 소속사 루아엔터테인먼트는 "현재 호감을 가지고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단계다. 만남을 가지기 시작한지 1개월 남짓"이라면서 두 살 연하인 비와의 만남을 시인했다.

그러나 이어 "너무나 잘 알려진 연예인이고, 만날 시간조차 충분치 않은 데다 이야기를 나눌 장소도 한정돼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런 여건을 가진 두 사람이 그동안 연예인 동료로 지내온 시간들을 넘어서서 조금씩 서로를 보는 감정이 달라지고 있지만 지금이 자신들도 마음을 잘 알기 어려운 시기인 듯하다"고 열애라는 표현은 조심스러워했다.

앞서 한 온라인 연예 매체는 비와 김태희가 데이트하는 사진을 공개하면서 3개월째 열애 중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11년 10월 한 CF를 통해 처음 인연을 맺은 둘은 지난해 9월부터 본격적인 교제를 시작했다.

한편 핑크빛 소식에도 불구하고 정작 비는 연예병사의 불공정 연예 병사 특혜 논란으로 뒤는 바람에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지난달부터 월요일마다 국군방송 라디오를 진행한 뒤 김태희와 데이트를 즐겼고, 크리스마스에도 4박5일의 휴가를 나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는 내용이 전해지며 일반 병사에 비해 자주 외출이나 외박, 휴가를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서다.

현재 국방 홍보지원대 소속으로 활동 중인 비는 7월 전역 예정이고, 김태희는 3월 방영될 SBS '장옥정, 사랑에 살다'(가제)의 장희빈 역으로 2년 만에 안방극장에 돌아온다. /김관현기자 tak0427@metroseoul.co.kr

TMON

www.TMON.co.kr

젠닌

덴뿌라

파라마운트 어학원

강원도와 경상북도, 충북 단양의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 문화 그리고 생태체험이 있는
백두대간 역사문화생태탐방열차는 서울역(청량리역) – 강원도 영월 – 정선 – 태백 – 정동진 – 경북 봉화 – 영주 풍기 – 충북 단양 등을
거치는 코스로 한 폭의 수채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전해드릴 것입니다
하얗게 수놓은 백두대간의 눈꽃 장관은 겨울 여행만의 운치와 낭만을 가슴가득 담아드릴 것입니다.

강원도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그 곳! 녹색도시 우수사례로 선정된 강원도에서 눈부시게 아름다운 자연을 만나십시오.

태백산 및 석탄박물관 → 365세이프타운 → (정선5일장 → 신동 → 정동 → 청령포 → 선암마을 → 정동진 해돋이)

경상북도

전통의 향기가 살아있는 곳! 역사와 자연이 숨쉬는 경상북도로 여행을 떠나보세요.

부석사 → 소수서원과 선비촌 → 풍기인삼시장 → 봉화승부역 → 청량산도립공원과 청량사

충청북도 단양군

꼭 한번은 가보고 싶은 곳! 휴양관광도시 충청북도 단양으로 떠나보세요.

온달관광지 → 다누리 아쿠아리움 → 도담삼봉 → 장회나루 → 단양고수동굴 → 소백산

12월 여행

22일, 23일(당일)
- ※ 태백편(대인 43,000원 / 소인 46,200원)
- ※ 정선편(대인 65,000원 / 소인 55,000원)
- ※ 태백 & 영월편(대인 59,000원 / 소인 57,000원)

25일(당일)
- ※ 영주 1편(대인 48,000원 / 소인 47,000원)
- ※ 영주 2편(대인 59,000원 / 소인 57,000원)
- ※ 단양편(대인 59,000원 / 소인 57,000원)

28일(무박 2일)
- ※ 영주편(대인 69,000원 / 소인 67,000원)
- ※ 봉화편(대인 65,000원 / 소인 68,000원)

29일(무박 2일)
- ※ 단양편(대인 69,000원 / 소인 67,000원)

1월 여행

12일(당일)
- ※ 단양편(대인 45,000원 / 소인 42,000원)
- ※ 영주편(대인 49,000원 / 소인 45,000원)

12일(무박 2일)
- ※ 영주편(대인 59,000원 / 소인 56,000원)

19일(당일)
- ※ 단양편(대인 45,000원 / 소인 42,000원)
- ※ 영주편(대인 49,000원 / 소인 45,000원)

19일(무박 2일)
- ※ 단양편(대인 54,000원 / 소인 52,000원)

20일(당일)
- ※ 정선편(대인 65,000원 / 소인 55,000원)
- ※ 태백편(대인 54,000원 / 소인 50,000원)

27일(당일)
- ※ 정선편(대인 65,000원 / 소인 55,000원)
- ※ 태백편(대인 54,000원 / 소인 50,000원)

25일(당일)
- ※ 단양편(대인 45,000원 / 소인 42,000원)
- ※ 영주편(대인 45,000원 / 소인 45,000원)

※ 상기 일정 및 요금은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여행비 포함내역 : 왕복열차비, 연계버스비, 입장료, 여행자보험
※ 신청 및 문의 : 코레일관광개발 02)2084-7786 www.korailtravel.com / 경상북도관광공사 054)740-7332 www.gtc.co.kr

국토해양부 강원도 경상북도 충청북도 단양군 GTC 경상북도관광공사 KORAIL 한국철도공사

한파속 훈남셰프 혀끝 녹인 '매화 여인들'

하이트진로 '매화수 드림 레시피 콘테스트' 본선 후끈

20대 여성들 톡톡튀는 '매화수 맛궁합' 선봬
양미나씨 '코코넛 오리엔탈 연어구이' 우승

지난달 27일 서울 청담씨네시티 엠큐브가 달달하면서도 상큼한 매화의 향기로 가득 찼다.

하이트진로가 이날 진행한 '매화수 드림 레시피 콘테스트' 본선 현장은 북극 한파를 녹여버릴 만큼 후끈했다. 이번 행사는 하이트진로가 매실 숙성 매실주인 '매화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요리 경연 대회로 14대 1이 넘는 높은 경쟁률을 뚫고 올라온 15개 팀이 '매화수와 가장 잘 어울리는 레시피'를 주제로 개성 넘치는 요리들을 만들었다.

'진지한 거상달떡', '자암장장', '향긋한 부루스게타' 등 재미있고 톡톡 튀는 이름의 레시피부터 연어, 참치, 어귀간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한 레시피까지 아이디어와 모양새가 다채로운 레시피들을 선보였다.

치열한 요리 경쟁을 지켜본 눈들은 미서웠다. 이날 본선대회 심사는 '훈남 셰프'로 유명한 정신우·신효섭 셰프와 외식업계 미다스 손으로 불리는 SG다인힐 박영식 부사장, 박미향 음식 전문 기자, 그리고 하이트진로 신은주 상무가 맡았다.

심사총평을 한 정신우 셰프는 "모든 참가자들이 20대 여성들인 만큼 톡톡튀는 발랄함이나 도발적인 도전이 보이는 레시피들이 많이 새로웠다"며 "무엇보다 젊은 여성들의 매화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우승의 영광은 '코코넛오리엔탈 연어구이'를 만든 양미나(27)씨에게 돌아갔다. 양씨는 8년 차 양식당 셰프로 평소 매화수를 즐겨 마시는 매화수 팬이기도 하다. 그는 "평소 매화수는 '한국의 와인'이라 생각하고 좋아하는데 직접 만든 레시피가 인정받아 너무 기쁘다"며 웃었다.

1등을 수상한 양미나씨에겐 500만원의 상금이 돌아갔다. 이어 2등은 '상큼한 서석채소와 고소한 참치 타다키'를 선보인 경재이(23)씨, 3등은 '흑임자 두부유자 샐러드'를 만든 예민정(25)씨가 받았다.

▲지난달 27일 '매화수 드림 레시피 콘테스트'에서 우승자인 양미나 씨(왼쪽)를 비롯한 참가자들이 대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가졌다.
◀하이트 진로의 신은주(맨 오른쪽) 상무 등 심사위원들이 참가작품을 꼼꼼히 심사하고 있다.
◀한 참가자가 자신의 출품작을 조심스럽게 전시하고 있다.

하이트진로 마케팅실 신은주 상무는 "'매화수 드림 레시피 콘테스트'는 20대 젊은 여성들의 꿈과 재능, 그리고 열정을 응원하고자 만든 자리로 매화수가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확인

매화수 6년째 1위 매실주

하이트진로의 '매화수'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국내 매실주 시장에서 6년 연속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대표 브랜드다.

부드럽고 달콤한 맛, 그리고 매화수만의 감성적인 이미지로 기존의 다른 술과 달리 20대 젊은 여성들에게 어필하면서 부담 없어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술로 통하고 있다.

뱀의 해 맞이 3m길이 케이크 커팅식 계사년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신도림동 디큐브백화점의 임직원들이 신년회를 가진 뒤 뱀띠해를 상징하는 3m 길이의 대형 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한우세트 반값도 명함 못내밀겠네

강강술래 설선물 예약 최대 64% 할인 씁니다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오늘(2일)부터 온라인 쇼핑몰(www.sullai.com)과 전화 주문(080-725-9292), 전 매장을 통해 설 명절 선물세트 예약 판매에 들어간다. 최대 64% 할인 판매하며 13일까지 사전예약 기간 구매 시 5% 추가 할인 혜택도 준다.

물가와 고물가 여파로 어려워진 고객 부담을 덜기 위해 중저가 실속세트부터 1+등급 이상의 한우를 사용한 명품세트까지 다양한 상품 구성으로 선택의 폭을 넓혔다고 회사 측은 말했다.

100% 한우사골곰탕과 영양간식 갈비탕 쇠고기육포 선물세트는 30% 할인 판매한다. 곰탕 대용량세트(800ml-5팩-15인분)는 3만7800원, 소용량세트(350ml-5팩-10인분)는 2만2000원, 육포세트(6봉)는 2만5200원에 구매 가능하다.

인기 메뉴인 한우불고기1호(1.9kg-5만원)와 한우양념1호(8대-15만원) 등 한우국선세트도 최대 64% 할인 판매하며 술래양념1호(16대)는 40% 할인된 2만원에 선보인다.

대표 메뉴끼리 결합한 술래실속(술래 16대+한우불고기 1.9kg)은 13만원, 한우실속(한우 8대+한우불고기1.8kg)은 20만원에 판매하며 1+등급 이상의 한우만을 사용한 한우찜갈비세트(2.4kg-17만원)와 한우명품세트2호(안심-등심 채끝 2.4kg)도 22만원 파격가로 선보인다.

'에쎄' 새 패키지로 출시

KT&G가 최근 초슬림 담배 '에쎄(ESSE)' 6종의 패키지를 새단장해 출시했다.

에쎄 클래식, 에쎄 라이트, 에쎄 챌린드, 에쎄 원, 에쎄 아이스(기존 에쎄 멘솔), 에쎄 아이스 1mg(기존 에쎄 멘솔 1mg) 등 6종이다. 기존보다 밝고 경쾌한 색상과 현대적인 디자인을 입히고 패키지 표면에 엠보싱 패턴을 적용해 고급스러운 느낌을 더했다고 회사 측은 말했다.

맛과 타르 함량은 기존 제품과 동일하며 가격도 갑당 2500원으로 같다.

휠라 EQ 인증 친환경 책가방 오토봇·프린세스 라인 출시

휠라코리아가 친환경 인증 'EQ 마크'를 획득한 2013년 신학기 책가방 '2013 TF 오토봇 시리즈'와 '프린세스 라인'을 출시했다.

오토봇 시리즈는 영화 트랜스포머3의 주인공 '범블비'와 '옵티머스 프라임'을 3D 디자인을 통해 실제 로봇과 자동차처럼 입체감 있게 형상화한 것이 특징이다. 어아용 '프린세스 라인'은 리본·하트·나비를 모티브로 여성스러움을 강조했다.

두 라인 모두 인체공학적 설계로 아이들의 체형과 건강까지 고려했다. 책가방은 7만4000~11만500원, 보조가방은 2만4000~4만5000원.

신학기 가방 출시를 기념해 세트 구매 시 실내화와 마련다 실내 세트를 한정 수량으로 증정한다. 특히 오토봇 시리즈 구매 고객에게는 선착순으로 로봇 장난감까지 선물로 준다.

/박재원기자

32만원 선불카드·BMW…달콤하게 쏜다

롯데면세점 다음달 13일까지 '스위트 뉴 이어'
방문만 하면 '520d' 응모…화장품 기획전 '손짓'

롯데면세점이 새해 초 달콤한 쇼핑 기회를 제공하는 '스위트 뉴 이어(SWEET NEW YEAR)' 이벤트를 시작, 오는 2월 13일까지 이어간다. BMW 자동차를 비롯해 롯데월드 연간이용권, SK-II 스파 이용권 등 대규모 경품과 사은품을 풍성하게 준비했다. 또한 선불카드 혜택을 늘리고, 롯데면세점 단독 화장품 기획전을 선보인다.

롯데면세점은 올해부터 여행 성수기에 고객들이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지난해보다 크게 늘린다는 계획이다. 그 첫 번째 행사인 '스위트 뉴 이어' 이벤트는 선불카드 혜택을 최대 32만원까지 올려 사은품으로 또 다른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했다.

서울 소공동 본점에서는 구매 금액별로 롯데카드로 결제 시 2000달러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28만원권, 1000달러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15만원권을 증정한다. 잠실점과 코엑스점은 매회 2000달러 이상 구매 시 32만원권 선불카드, 1000달러 이상 17만원권, 500달러 이상 9만원권을 제공한다. 공항점도 선불카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함께 진행한다.

면세점 고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화장품도 롯데면세점에서만 단독 기획전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설화수는 자음수(125ml)와 자음유액(125ml), 윤조에센스(90ml), 아이크림(25ml), 자음생크림(60ml), 순행클렌징폼(50ml)으로 구성된 화장품 세트를 45달러 할인된 가격인 446달러에 판매한다. 겔랑의 메테오리트 푸치 브러시가 30달러, RMK의 메이크업베이스와 젤크리미 파운데이션 세트를 63달러에 판매한다. 케라리, 엘리시브, 이세이미야케의 단독 기획 제품도 준비했다.

◆ 잠실점선 롯데월드 1년권 선물

올 겨울 해외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롯데면세점을 방문하기만 해도 BMW 자동차 경품이 기다리고 있다. 롯데면세점 전점에서 여권과 항공권을 소지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 각 지점 응모 장소에 비치된 응모권을 작성하면 된다. 추첨을 통해 국내 수입 베스트셀링카 'BMW 520d'(1명)를 증정한다.

롯데면세점 잠실점에서는 미화 2000달러 이상 구매한 고객 대상으로 1년간 롯데월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롯데월드 연간이용권(Green)을 모두에게 나눠준다. 코엑스점은 매회 2000달러 이상 구매 고객에게 보디 오일 마사지와 두피 관리를 받을 수 있는 SK-II 부티크 스파 이용권(27만원 상당)을 선물한다.

설 연휴 기간인 2월 9~11일 롯데면세점 잠실점과 코엑스점을 방문하면 세뱃돈도 덤으로 준다. 여권과 항공권을 소지한 모든 고객에게 무료로 1만원권 선불카드를 제공할 예정이다.

롯데면세점의 이경민 마케팅팀장은 "올해는 롯데면세점을 찾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다양하면서도 차별화된 이벤트를 펼쳐나갈 것"이라며 "실질적인 혜택을 늘리고 사은품은 풍성하게 제공해 실속 있는 쇼핑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www.lottedfs.com

/안효숙기자

새해맞이 '스위트 뉴 이어' 이벤트가 시작된 롯데면세점이 쇼핑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대형마트 '월 2회 빨간날' 의무휴업

지리가 지연될 듯했던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이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월 2회'로 확정됐다. 영업제한 시간은 자정에서 다음날 오전 10시까지로 정해졌다.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절충안을 통과시켰다. 월 3일 이내이던 의무휴업은 일요일을 포함해야 하는 조건이 붙어 강화됐다. 영업제한 시간은 맞벌이 부부들의 야간 쇼핑 편의를 고려해 당초 지난달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마련된 오후 10시~오전 10시보다 2시간 단축됐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월 3회 의무휴업을 못 박았던 애초 개정안보다 규제 강도가 다소 약해진 만큼 '불행 중 다행'이라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휴일을 포함해 월 2회 의무휴업을 하면 기존 매출의 10% 정도는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법이 효력을 발휘하기까지는 5~6개월 정도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고 이후 지자체마다 조례에 해당 내용이 반영돼야 해서다. 휴일 의무휴업의 경우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조정이 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을 둔 만큼 추후 유통업체와 지자체 간의 협의 과정에서 매장별로 쉬는 날이 달라질 수도 있다.

현재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 등 유통업체들은 대중소 유통업체들이 모임인 유통산업발전협의회에서 마련한 상생안에 따라 월 2회 평일 자율휴업을 시행하고 있다.

/김효순기자 hsoon@

평창 응원하고 리프트권 받고

휘닉스파크 메트로신문 휘팍에서 2018 준비하라

휘닉스파크가 메트로신문과 함께 '휘팍에서 2018 영광의 순간을 준비하라' 이벤트를 다음달 25일까지 실시한다.

메트로신문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에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응원 메시지와 설원에서 찍은 커플사진을 올린 고객 중 추첨을 통해 휘닉스파크 리프트권(1인 2매)을 증정한다. 당첨자는 응모 기간 중 수시로 발표하며 총 30명을 선발한다. 이번주에 뽑힌 사연을 소개한다.

◆ 당첨 사연1= "화려한 싱글인 저와 제 친구 지혜입니다. 휘팍엔 남녀 커플들이 참 많더군요. 어디 솔로 스키장은 없나요? 휘팍에도 싱글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ID:cat1998)

◆ 당첨 사연2=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기원하며 휘팍 리프트권을 살짝 신청해봅니다. 동계올림픽파이팅! 휘닉스파크 최고!" (ID:임자있으신몸)

■ 스키어 보더의 천국 휘팍

2018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평창에 위치한 휘닉스파크는 스키 보드 등 동계스포츠를 즐기기에 최적의 장소다. 총 23면의 슬로프 중 12면의 FIS공인 슬로프를 비롯해 광활한 스키베이스를 갖추고 있으며, 스키어와 보더를 위한 하프파이프, 난이도별 점프대와 레일 등이 설치된 익스트림 파크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 렌탈용 보드 장비를 버튼의 최신 테크로 교체하고 지방 무료 셔틀버스를 구미 청주 대전 대구 부산 등으로 확대 운영해 더욱 편하게 스키와 보드를 즐길 수 있다.

문의 1568-2828

'바다 귀요미' 벨루가랑 롯데월드서 대화해요

롯데월드가 국내 최초 쌍방향 토크쇼 '벨루가 토크쇼'를 선보였다.

'벨루가 토크쇼'는 가로 6m, 높이 3m 크기의 대형 스크린 바닷속을 유유히 헤엄치는 흰고래 '벨루가'와 관객이 실시간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어트랙션. 국내 처음으로 개발된 라이브 애니메이션 기술 '애니로보'를 적용, 움직이는 3D 캐릭터와 특수효과가 결합된 새로운 디지털 세계를 선사한다.

'벨루가 토크쇼' 입구에 들어서면 신비한 벨루가를 찾기 위해 함께 를 떠났던 전설의 난파선과 바닷속 세상이 펼쳐지는데, 이따 상어들에게 쫓기는 벨루가가 깜짝 등장해 관객들에게 말을 건다. 자녀를 동반한 가족이 함께 즐기기에 좋다. 1시간에 약 3번, 최대 200명이 입장할 수 있다. 문의 02)411-2000

/박지원기자

"독일서 우뚝 서 영국 가겠다"

범띠 스포츠 스타 포부 구자철 휴식 마치고 출국…넥센 서건창도 "팀 4강 견인" 각오

뱀의 해인 2013년 계사년(癸巳年)이 밝아오면서 1989년생 24세 범띠 스포츠 스타들이 환하게 웃고 있다.

축구 스타들이 가장 눈길을 끈다. 2012 런던올림픽에서 사상 첫 동메달을 따내며 한국 축구의 황금시대를 연 구자철(아우크스부르크)·기성용(스완지시티)·김보경(카디프시티)·김기희(알사일리아)·박종우(부산)·황석호(히로시마) 등이 주인공이다. 이들은 올해 8회 연속 월드컵 본선행을 이끌 주역으로 커나갈 큰 꿈을 꾸고 있다.

새해 첫날 '꿀맛' 휴식을 끝내고 독일로 출국한 구자철은 "내가 범띠라서가 아니라 올해는 하루도 지지 않는 것이 목표다"며 "많은 공격 포인트로 분데스리가에서 정상에 오른 뒤 잉글랜드로 진출하겠다. 또 국가대표로 월드컵 무대에 선다면 최고의 모습을 보이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프로야구에서는 2012 시즌 신인왕을 거머쥔 서건창(넥센)이 주목된다. 2011년 말 신고선수로 어렵게 프로무대를 다시 밟은 그는 지난해 127경기에 출장해 타율 0.266(433타수 115안타), 39도루 70득점을 기록하며 넥센 돌풍을 이끌었다.

서건창은 "지난해는 신인이었기 때문에 실력 이상의 칭찬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며 "올 시즌의 가장 큰 목표는 '팀의 4강 진출'이고 개인적으로는 단단한 수비를 더 많이 보여드리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국 수영의 간판' 박태환과 남녀 스피드스케이팅의 대표주자 모태범·이상화도 범띠 스타다. 박태환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을 위해 조만간 호주로 건너가 전지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외에 프로배구에서는 양효진(현대건설)·허준임(한국도로공사)·부용찬(LIG손해보험) 등이 있다. 이 중 가장 활발한 활약을 펼칠 것으로 기대되는 양효진은 올해 팀을 우승으로 이끌겠다는 각오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구자철

서건창

이선호의 베이스볼 카페

2013 '힐링야구' 기쁘지 아니한가

새해 프로야구는 굵직한 뉴스가 줄줄이 준비되어 있다. 1월은 10구단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진다. KT·수원과 부영·전북 가운데 한 곳이 된다. 논리에서도 사업성과 지역 안배를 놓고 팽팽하다. 야구판도 양쪽으로 갈리고 있다.

2월부터는 WBC 정국이다. 제3회 대회가 대만과 일본, 미국에서 열린다. 한국은 첫 우승을 노린다. 그러나 주력선수들의 이탈 사태로 전력이 크게 약화됐다. 류중일호가 어려움을 딛고 신화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

3월부터는 9번째 심장인 신생 NC가 시범경기를 시작으로 리그에 참가한다. 9구단 체제가 되면서 한 팀이 쉬어야 한다. 감독들의 운영 전략이 중요해진다. 지난 2년간 훈련과 선수 수혈을 마친 NC의 행보가 미풍일지 돌풍일지 궁금하다.

아울러 괴물급 대우를 받고 LA 다저스에 입단한 류현진의 메이저리그 시상이 시작된다. 박찬호에 이어 두 번째 코리안 특급이 될 것인지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추신수는 신천지 신시내티에서 새로운 성공에 도전한다. 오릭스 이대호는 2년째를 맞아 타관왕에 도전한다.

삼성은 사상 두 번째 3연패에 도전하고 SK는 7년 연속 한국시리즈를 정조준하고 있다. 명장 김응룡 감독을 영입한 한화의 변화도 팬들의 눈길을 잡고 있다. 10년째 가을잔치 초대권을 받지 못한 LG 체면이 구긴 선동열의 KIA도 명예를 회복할 것인지 관심이다. 10월이면 희비가 엇갈린다.

시즌이 끝나면 사상 최대의 FA 시장이 열린다. KIA 윤석민은 메이저리그를 노크하고, SK 정근우·롯데 강민호·KIA 이용규의 이적 여부, 그리고 삼성 소방수 오승환의 일본행 여부도 결정된다. 12월이면 최첨단 광주신구장이 완공돼 한국 야구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다.

이제 국민들은 야구를 너무 사랑한다. 800만 관중을 바라볼 만큼 부쩍 성장했다. 모쪼록 야구인들이 가슴 뛰는 새해를 맞는 국민들에게 갈등이 아닌 감동과 정직한 결실이 주는 힐링 야구를 펼쳤으면 한다.

/OSEN 야구전문기자

4호골 이청용 주간 베스트 11

잉글랜드 챔피언십(2부리그)에서 시즌 4호골을 터뜨린 이청용(25·볼턴·사진)이 주간 베스트 11에 뽑혔다.

이청용은 지난달 30일 2012~2013 잉글랜드 챔피언십 25라운드 버밍엄과의 홈경기에서 풀타임을 뛰면서 1-1로 팽팽하게 맞서던 전반 33분 역전 결승골을 뽑아내 팀 승리를 이끌었다. 그가 볼턴의 홈경기장에서 골을 터뜨린 것은 2011년 4월 이후 21개월 만이다.

챔피언십 사무국은 1일 19주차 주간 베스트 선수 명단을 발표하며 이청용을 중앙 공격형 베스트 미드필더로 선정했다. 한국 선수가 잉글랜드 챔피언십 주간 베스트 11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은 처음이다.

/김민준기자

지동원 아우크스부르크 임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선덜랜드에서 뛰는 지동원(22·사진)이 독일 분데스리가 아우크스부르크로 임대됐다는 소식이 흘러나왔다.

국내 한 스포츠 신문은 1일 유럽 축구 소식에 정통한 관계자의 말을 빌어 "선덜랜드가 지동원의 아우크스부르크행을 허락했다"며 "임대 형식으로 기간은 1년이고 아우크스부르크는 상당한 금액의 임대료를 냈다"고 전했다.

이어 "지동원은 메디컬 테스트를 취해 1월 독일로 떠난다. 조만간 양측 구단이 지동원의 임대를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우크스부르크는 구자철이 뛰는 곳으로 지동원의 임대가 확정되면 이들은 한솥밥을 먹는다.

마틴 오닐 선덜랜드 감독도 이날 프리미어리그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동원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체력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른 구단에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준기자

전국민 영어회화 프로젝트 New English 900

봉문정 학습법의 창시자 코넬리우스의 4단계 기초회화 훈련법

Day 4 What are these?
사물에 대해 말하기(복수)

New English 900
공식 카페 e900.co.kr

출처: New English 900 Vol.1
본 지면은 New English 900 Vol.1의 서점으로합니다.

긴 대화 훈련

▶ 우리말을 영어로 바꾸어 다음 대화를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A Is it time to begin the conference?
B Yes, it is. 여기 당신의 책들이 있어요.
A These books aren't mine.
B Then 이것들은 누구의 책들이죠?
A 이것들은 제 것이고, 저것들이 당신 거예요.
B Yes. That's right.

정답 Here are your books. / whose books are these? / These are mine, and those are yours.

생생영어팁

▶ They aren't mine. VS. They're not mine.

그것들은 제 것이 아니에요. vs 그것들은 제 것이 진짜 아니라니까요.

위의 두 문장은 모두 '그것들은 ~가 아니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aren't는 be동사 are와 not이 합쳐진 형태입니다. 그런데 They와 are를 합쳐 They're로 줄이고, 뒤에 not을 따로 붙여 They're not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문장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대개는 큰 차이 없이 쓰이지만 영어에서 단어를 따로 떼어 말하는 것은 그만큼 그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They aren't라고 할 때보다 They're not이라고 할 때 not을 더 강조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려는 의도에서 They're not이라고 말하는 거죠.

TOEIC ▶ ETS TOEIC Starter Reading

토익에 자주 나오는 명사 어휘들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관련표현과 함께 익혀 두세요.

claim	명 요구, (배상) 청구 동 주장(요구)하다	a claim for damages 손해배상 청구
combination	명 결합 combine 동 결합시키다	in combination with ~와 결합(협동)하여
convenience	명 편리함	at your earliest convenience 형편 닿는 대로 조속히
delay	명 지연 동 지연시키다	a long delay 오랜 지연
exposure	명 노출 (to) expose 동 노출시키다	exposure to danger 위험에 노출
lecture	명 강의 동 강의(강연)하다	guest lecture 초청 강연

TOEIC Speaking ▶ Jump Up TOEIC Speaking Basic

Part 1. Read a text aloud

발음 연습하기

- [f] & [v]

[f]발음을 할 때, 먼저 윗입술과 아랫입술을 밖으로 쭉~ 내민다. 그리고 윗니를 아랫입술 안쪽의 침이 묻어있는 부분에 살짝 가져다 놓는다. 그 상태로 멀리 놓인 촛불을 끄듯 후~ 하고 세차게 바람을 불어 낸다.

[v]발음은 [f]발음과 달리 성대를 울리는 유성음이다. [f]발음을 낼 때와 똑같은 입모양을 한 상태에서 [v]발음을 해보면, 분명 [f]발음을 낼 때와는 달리 입술과 치아 사이로 미세한 떨림이 느껴질 것이다.

[f]			[v]		
fast	refuse	tariff	view	device	cave
file	fulfill	life	value	advise	arrive
free	offer	safe	valid	devote	solve

본 지면은 YBM의 컨텐츠로 구성됩니다. ybmbooks.com 02)2000-0515

HYUNDAI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진심을 담은 따뜻한 자동차

뱀의 해, 계사년을 맞아 어제의 생각들은 벗겠습니다
진심을 담은 새로운 생각으로 사람들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주는
현대자동차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13년 고객 여러분들이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HYUNDAI MOTOR GROUP